

한국여성학회 학술콜로키움  
비대면의 시대 “코로나19와 젠더의 미래”

---

# 스타디움을 넘어 거주지로

2020.08.27(목)

윤 보 라(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·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)

## ‘단톡방 성희롱 사건’의 등장과 담론의 지형

---

- 2014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‘단톡방 성희롱 사건’의 보도
- ‘사적 공간’의 대화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
- 젠더 감수성과 윤리 감각을 상실한 남성들이 모여 일으킨 추문인가
- “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” – 단톡방을 제보한 남성의 이야기
- 주변화된 ‘단톡방 성희롱’

## 반성폭력 운동과 ‘단톡방 성희롱’

---

-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점을 묻고 권력의 실행 장소로서 섹슈얼리티를 정치적 의제로 부각
- 근대적 시민권 개념의 재규정을 요청하여 성적 주체로서 여성의 시민권을 거시적으로 성찰할 것을 제안해 온 역사
- ‘단톡방 성희롱’의 의미구성과 작동 조건, 실천 방식은?

## 스타디움의 세계에서 거주지로

---

“스타디움이란, 무대 혹은 경기장인 아레나(arena)를 둘러싸고 관중석이 빙 둘러 있는 서양 고대로부터의 원형극장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…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쟁투를 벌이는 장(場)으로서의 정책 아레나뿐 아니라, 이것을 보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시민들의 위치까지 포함하기 위해, 한국 여성정책의 지형을 일컫는 용어로서 ‘스타디움’을 사용했다” (배은경, 2016:9)

## 스타디움의 세계에서 거주지로

---

- 2009년, 아이폰 3GS의 한국 상륙
- 기술과 인간- 기술을 체현하고, 신체를 확장하고, 기술을 해석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는 관계
- “부재하는 현존” (Idhe, 1990:109)
- 기술이 실행되는 사회적 맥락과 기술 출현의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젠더

## 거주지와 거주자

---

- 디지털 거주지(digital dwelling), 자아가 영위하는 활동의 장소, 자산과 권력을 운용하는 소재지
- “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앱, 카카오톡” (이용숙 · 이수현, 2019:222)
- ‘진짜’-자아와 디지털-자아 사이에 아무 거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시효과
- 갠톡에서 단톡으로
- 인격화된 단톡방과 폭력의 착종

## ‘단톡방 성희롱’의 제도화

---

- 마이어와 로완(Meyer & Rowan)의 제도: 한 사회나 조직의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행위규범, 사회적 삶의 일부 영역을 지배하는 준거틀
- 서로 간에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규범의 설치를 통해 상대방을 지시하고, 평가하고, 의무화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여기서 이탈하려는 경우 즉시 처벌과 제재를 통해 규제
- 단톡방 성희롱, 남성들 간의 놀이문화로 수행되는 것을 넘어서 관습과 관례, 협약 등 비공식적 규범을 통해 제도화

## 다시, 반성폭력 운동과 디지털 성폭력

---

- ‘단톡방 성희롱’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성찰해야 할까
- ‘단톡방 성희롱’의 공론화를 통해 페미니즘이 넓히고자 한 궁극적인 지평은 무엇이었는가
- 디지털 성폭력이 침해하는 여성의 권리, 시민권의 의미, 보호하고 발굴해야 할 개념들은 무엇인가



**감사합니다.**

---